

## 실습생 내러티브 저널

연극영화교육전공  
20253089 유창연

2026.04.27.(월)

교생 실습의 첫날이다. 아침에 교통편을 확인하고 일찍 나왔는데 길을 잘못들어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다. 새로운 환경이라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동료 교육실습생들의 나이가 나와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 나를 제외한 동료 교생들이 연령대가 비슷하여 특히 내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교무실 맞은 편에 교생 공간이 있기 때문에, 떠드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괜히 했나 싶다. 그래도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악역을 맡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6.04.28.(화)

오늘은 조레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고등학교 3학년 입시반을 맡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곤함이 얼굴에 너무나도 잘 드러난다. 쉬는 시간에도 자는 학생들이 많았다. 다른 교생보다 나이가 많기에 다가오기 어려워하는 느낌이 들었다. 학생들과 어떻게 친해지면 좋을지 생각을 많이하게 된 하루였다.

2026.04.30.(목)

연휴를 앞둔 목요일이다. 오늘만 보내면 5일간의 꿀같은 연휴를 맞이한다. 그리고 교생실습 시작한지 벌써 1주차가 되었다. 학교에 어느정도 적응이 되었다. 동료 교생 선생님들과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밥을 같이 먹으며 많이 친해짐을 느낀다. 다행히 학부 후배가 대중예고에서 뮤지컬 강사를 하고 있기에, 의지할 사람이 생겨 힘이 생겼다. 틈틈이 학부 후배랑 이야기를 나누며 학교 분위기와 학생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 학부 후배의 뮤지컬 수업 참관을 하기로 했다. 무대에서 같이 연기를 한 후배의 수업이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2026.05.06. (수)

연휴 후의 출근은 너무나도 힘들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와 학생이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틀만 더 출근하면 다시 주말을 맞이하기에 힘을 내려고 노력했다. 인천대중예고 급식실이 신축 이전하여, 오늘은 처음으로 급식 지도를 했다. 교생들과 제비뽑기로 지도하는

위치를 정했는데, 다행히 좋은 곳에 배치되었다. 본격적으로 연구 수업 준비를 시작했다. 원래 계획됐던 과목과 수업 주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6.05.08.(금)

오늘은 1,3학년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이기에, 출근을 학교가 아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했다. 학교를 다니거나 공연을 하러가는 대학로가 아니었기에 너무나도 새로운 기분이 들었다. 학생들의 안전 지도 겸 보조 인솔의 역할을 수행했기에,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잠깐의 여유가 있을 때, 옆반 교생선생님과 대학로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선생님들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싶었으나, 동료 교생선생님들이 불편해해서 교생들끼리 대학로에서 점심을 먹었다. 마지막 코스는 창경궁으로 도보 이동이었는데, 공연을 했던 창경궁을 현장체험학습 인솔로 가다보니 하루종일 새로운 기분이 들었다.

2026.05.11.(월)

월요일 1교시 첫 번째로 연구수업을 진행했다. 주말 내내 연구수업 준비를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걱정하지는 않는다. 완벽한 준비라는 것은 없기에. 물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수가 있었으나, 큰 실수는 아니었다. 아쉬운 것은 수업 계획서 작성법을 대학원 재학 중인 내가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도 창피했다. 학생들과 라포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상 있는 일이라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교생 실습의 큰 고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은 기간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6.05.12.(화)

오늘은 학부 후배의 뮤지컬 보컬 수업을 참관하였다. 대중예고의 경우 담임선생님의 임장에 강사가 실기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후배의 수업을 참관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후배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며 많은 자극을 받았다. 뮤지컬 발성 훈련 중에 학생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수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을 마치고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이를 채워야겠다고 다짐했다.

2026.05.15.(금)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나는 스승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했다. 학생들의 이벤트를 보며, 나도 우리 담임선생님처럼 좋은 교사일까?라는 생각이 머리

를 떠나지 않았다. 좋은 교사란 무엇일까? 나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선뜻 대답을 하기 어려웠다. 6, 7교시에 한달에 한번 있는 동아리 활동이 있는 날이어서, 성결대 교대원 출신 양유빈 선생님의 동아리 수업에 참관했다. 양유빈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며, 내겐 저런 사명감이 있는지 학생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됐다. 오늘은 하루 종일 스스로 질문하는 날인거 같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못했다.

2026.05.18.(월)

오늘은 처음으로 학생과 상담을 진행했다. 고등학교 3학년인만큼 역시나 상담 주제는 입시와 관련된 것이었다. 학교에서 사전에 상담 가이드라인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상담을 진행했다. 학생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학생과 친밀감이 생겼다. 모든 학생과 다 상담을 하려고 했지만, 담임 선생님과 학생 상담 일정이 겹쳐 신청한 학생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야겠다.

2026.05.20.(수)

담임 선생님의 배려로 수행평가를 참관하게 되었다. 다른 교생선생님들과는 달리 나만 수행평가의 시험 감독을 하게 되었다. 대중예고의 경우 중간고사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에, 수행평가로 학생을 평가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행평가 문제를 보면서 생각보다 문제의 난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교 2학년 전공 수준의 문제가 출제 되었지만 시험 감독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이 문제의 답을 채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교사로써 시험의 난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6.05.26.(화)

인천대중예고에서의 짧디 짧은 교생 실습이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날이 되니, 아쉬운 감정이 많이 들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민거리가 있었지만, 결국 해결하지는 못했다.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아직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모습을 보며 나의 부족한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대학원의 남은 기간 동안 나의 부족함을 채워 좋은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